

石油製品輸入自由化에 대한 見解

우리 나라의 精油産業은 對内外의 獨占으로 獨占한 시
련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第2次 石油危機 이후 高油價에 따른 油類需要의
감퇴와 稼動率의 저하로 國內 精油産業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LPG등 石油代替에너
지의 보급확대로 精油産業은 중대한 도전과 시련을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政府의 綜合에너지政
策수립에 관한 검토과정에서 國內 石油類製品 수요
의 약10%를 實需要者로 하여금 직접 輸入 충당케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같은 石油製品輸入自由化 움직임은 현재 어
려움을 겪고 있는 精油産業을 더욱 위축시킬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周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精油産業은 대
다수 석유소비국의 精油産業과 마찬가지로 消
費地 精製主義에 입각하여 原油를 원료로 사용하여
각종 石油製品을 一貫生産하고 있다. 中東지역의 일
부 産油國이나 싱가포르, 로테르담등의 輸出을 主
目的으로 하는 精油産業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精
油産業은 원칙적으로 國內의 需要充足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석유류의 수출입량은 미미한 형편이
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의 精油産業은 內需産業
의 典型으로서 國內석유류의 수요충족을 기본목표
로 하여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精油産業의 본질적인 특성은 製品의 連産性이다.
즉 原油의 성질, 精製시설의 특성, 시장상황등
에 따라 製品의 구성비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原油의 分離精製工程에서는 반드시 휘발유, 灯油,
輕油, 重油, LPG등의 製品의 併産 또는 連産되기
마련이다. 精油産業은 시장의 수요구조에 따라 원

유를 선택 정제하여 수요를 균형있게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國內 精油産業의 현황을 보면, 油類수요
의 감퇴와 他에너지로의 代替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精製시설은 수요부진으로 50% 이상 遊休化되어
있어 國內 정제유류의 공급부족을 메꾸기 위한 輸

우리나라의 石油類製品價格이 外
國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理由
는 高率의 特消稅와 石油基金등 政
府부문비용이 차지하는 幅이 크고,
輕質油 수요가 낮아 原油收率上의
수익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精製社의 통제범위외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國內石油需要의 일부를 製品 輸入
에 장기의존할 경우 國內석유류안
정공급이 크게 위협받게 될것이다.

入이란 일부 제품(주로 LPG)을 제외 하고는 舍
불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燃料代替에 따른 LPG의
수입증가와 일부 低硫黃重油를 제외하고는 充分한
여유시설을 갖고 있는 國內精油産業은 自体生産分
으로 國內석유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bunker-C油등 일부 석유제품을 輸入하는
일은 있었으나 그것은 주로 수급조절에 목적이
있었다. 灯油의 경우, 계절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소량을 수입한 경우와 일시적인 國內精製시설의 일

부운후, 原油공급의 부족등으로 긴급수입하고 있으나, 이 경우의 수입은 어디까지나 一時的인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LPG와 벵커-C油의 輸入이다. LPG의 경우를 보면, 당초 다른 目的으로 계획, 도입한 LPG를 營業用 택시의 燃料代替用으로 용도를 바꾸어 수요를 확대시킨데 기인하고 있다. 또 高率의 특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揮發油價格의 상대적 不利가 LPG 수요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市民生活의 편의를 위한 都市연료의 瓦斯轉換은 바람직하지만, 自動車연료의 LPG 전환정책은 揮發油의 高價格정책과 아울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벵커-C油의 輸入을 보면, 여기에는 國內精油工場의 가동율저하와 油價政策이 그 원인을 이루고 있다. 近年에 이르러 벵커-C油의 수입이 현저히 증가한 이유는 低硫黃燃料油의 도입외에 年初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油類수요의 감퇴과정에서 國內精油社의 原油投入量이 감소한 반면 벵커-C油의 수요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나타난 벵커-C油 不足을 輸入으로 충당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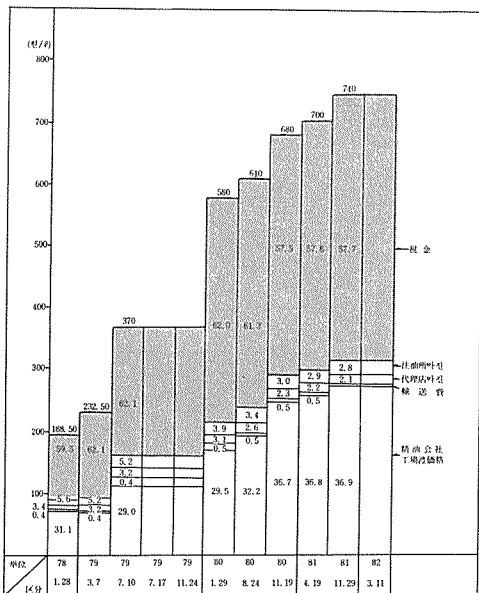
벵커-C油의 輸入증가는 정상적인 操業條件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油類需要의 감퇴에 따른 原油投入감소로 벵커-C油의 生産收率이 낮아진데 기인한 것이다.

또 價格面에서 볼 때, 國內石油類價格은 稅制와 소비구조등 구조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게 策定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동안 不足物量 도입시에 現物市場가격이 일시 하락하여 有利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 해외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 有利한 가격조건 的 製品導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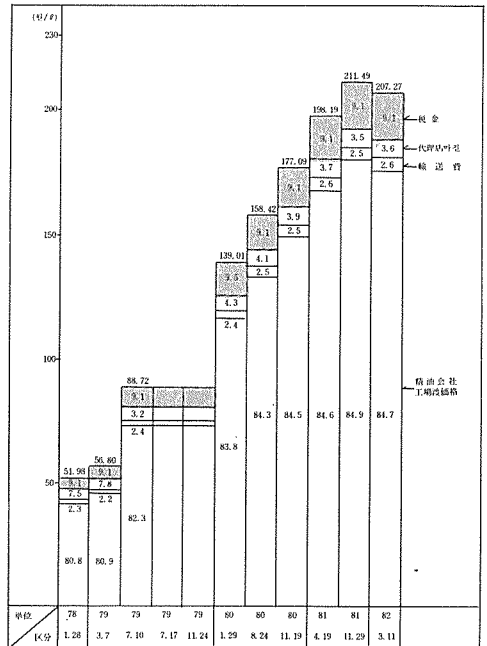
결국 國內精油産業이 처해 있는 狀況에서 볼 때, 實需要者에 의한 石油製品輸入허용은 國內석유수급 안정과 油價引下를 유도하려는 目的달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보더라도 現物市場에서의 物量확보는 계절적으로 需給變動이 심하고 전쟁이나 정치·경제적인 變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그 物量供給이 제한적이고 國內시장의 10%(약 5만B/D)나 되는 物量을 실수요자에게 의존할 경우 장기적인 안정확보가 의문시된다.

現物市場에서 供給價格이 일시적으로 低價인 경우에도 있으나 이는 現物市場에 流入되는 제품이

揮發油(普通) 消費者價格의 構造



벵커-C油 消費者價格의 構造



石油類稅의 國際比較

國別	稅制	稅率	消費者價格中税金比率(%)		
			揮發油	輕油	B-C油
韓國	從價稅	1. 特別消費稅(揮發油130%, 輕質7%) 2. 附加價值稅 10% 3. 防衛稅: CIF의 2.5%	57.5	14.5	9.1
日本	從量稅	1. 揮發油稅: 8,553엔/배럴 2. 石油去來稅: 3,863엔/배럴	35.2	4.1	
台灣	從價稅	1. 石油類 物品稅	13.7	13.0	3.1

특정 精油社나 특정지역에서 초과공급제품을 조절할 목적으로 폐기價格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一過性이며, 수출용 精油工場의 정상적인 정제에 의해 供給原價를 반영한 제품가격은 통상적으로 同供給지역내의 공급가격과 類似하여 국내가격과 課稅부분의 차이만큼 가격차가 있으며, 이 중 수요가 없는 제품은 폐기적 성격의 낮은 가격으로 投賣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油價수준이 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理由는 첫째, 石油事業基金과 高率의 税金 등 정책적인 비용이 차지하는 幅이 크며, 둘째는 선진 외국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輕質油需要가 적어 전체 原油收率上的 収益性이 낮은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國內需要의 일부를 製品輸入에 長期依存할 경우 國內石油類安定供給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설사 實需要가 시설과 人員, 去來先 확보 등 도입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해외도입가격이 저렴한 시기에만 가능하고 高價인 경우에는 이를 기피하고 國內精油社 供給分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될 경우 국내공급체계에 혼란을 가져 올

것이다.

당초 정부가 消費地 精製主義를 채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적인 原油 確保를 통한 國內精製로 국내석유류수급의 안정을 기하자는데 있으며, 또 精製과정에서의 諸費用은 국내의 附加價值로 남게 되므로 外貨収支面에서도 製品導入보다는 實益이 크

다는 판단에서였다. 따라서 國內産業活動의 기초에 너지인 石油의 안정공급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內精油시설이 충분한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需給均衡을 위한 輸入自由化는 불합리하며, 가격조절을 위한 제품수입은 무의미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石油政策下에서나 消費地 精製主義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내석유류제품의 공급책임은 어디까지나 精油社에 있으며, 또 國內精油社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操業조정과 수급조절을 통해 소요량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國內石油類의 安定供給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精油業界가 앞으로 석유류의 生産및 수출입을 통한 수급조절을 원만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稅制와 원유도입 정책 및 석유가격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精油産業의 안정성장과 나아가 石油의 안정공급을 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